

개 회 사

허 우 긍
대한지리학회장

존경하는 우리 지리학계의 원로 선생님과 여러 지리학회의 회장님, 그리고 지리학계의 구성원과 경희대학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뜻깊은 학술잔치에서 개회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 지리학회와 한자리에 모여 큰 학술잔치를 치르게 된 것은 우리 나라에 현대 지리학이 자리잡은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한국 지리학사에 길이 기록될만한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지리학회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한국 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다가오는 새 世紀에 지리학의 자리를 매기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번 대회는 지리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학문이고 자 하는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이 급변하면서 학문의 환경도 급박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문의 가치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가, 쓸모가 있는가 하는 잣대로 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도 이런 여건 변화를 염두에 두어 "21世紀의 삶의 질과 地理學"으로 정한 것입니다. "삶의 질"이란 주제는 새 세기의 지리학의 쓸모와 관련한 話頭로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自評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화두를 두고 여러 측면에서 토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각 참여학회를 대표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함께 삶의 질을 다 각도로 조명하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리학

을 만들기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지리학회대회에는 열개의 지리학 관련학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지리학계를 사실상 망라한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의 대회가 지리학계의 大同團합의 발판이 되어 시너지(synergy)를 창출해 내는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여 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섯도 되고 열도 되는 것이 시너지입니다. 지리학계가 연합하는 것은 우선 가깝게는 내년 즉, 2000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지리학회대를 예비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국내 학계의 단합은 더 나아가 국제적 협력과도 맥을 같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11월 15일에서 20일까지 中國地理學會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지리학회의 창립 90주년 기념대회에 경축사절로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회에서 동아시아,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지리학계의 연합을 제의하였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 8월의 서울 세계지리학회대가 동아시아 지리학연합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지리학회대는 이처럼 안으로나 밖으로나 지리학의 위상을 높이고 활로를 여는 기틀이 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학회간 대동단합의 다짐은 오늘의 구호만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 대회가 끝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참여학회 관계자들이 모여 오늘의 회의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결산의 자리에서 화두 "삶의 질"

을 다시금 정리하고, 국내, 국제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것입니다.

한국지리학회회가 이처럼 열리게 된 데에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는 각 학회에서는 여러 달 전부터 임원 한 분씩을 파견하여 한국지리학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를 조직하여 왔습니다. 대한지리학회의 총무 부장과 학술부장을 비롯한 준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회를 위하여 이처럼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대회 운영을 도와주신 경희대학교 총장님, 지리학과 교수님과 조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포

지엄에 기조연설, 논문발표, 사회와 지정토론 등을 선뜻 맡아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을 개인 생활을 모두 포기한 채 대회준비에 힘을 쏟은 대한지리학회 간사의 수고를 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산과 영종도에 답사를 다녀오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리학회의 연합대회가 학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만큼,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대회 끝까지 참여하시고 한국지리학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힘을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